



제목	The Fall of the Ottomans: The Great War in the Middle Eas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asic Books
발행일	2016. 10. 4.
저자	Eugene Rogan
출판도시	New York
페이지수	512
ISBN 또는 ISSN	978-0465097425

내용 요약

『오스만의 몰락: 중동에서의 위대한 전쟁』은 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가 중동에 끼친 영향, 특히 지역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저자 로건의 결론은 전후 여러 지역민들의 정착이 오스만 제국의 분열을 이끌었고, 이것이 오늘날 아랍 세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갈리폴리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전투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돋보이는 이 책은 세계대전과 현대 중동의 탄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이전 오스만의 술탄은 허약했고, 방대하지만 비효율적인 군대는 연이어 패배하였다. 이후 그들은 리비아를 이탈리아에 양도했고, 유럽에 있는 영토는 불가리아, 그리스,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로 독립했다. 터키의 지도자들은 독일과 연합했는데, 이유는 독일의 황제가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 주거나 최소한 제국 해체를 막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이 현대 중동의 형성과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갈등을 낳았다.

저자에 따르면, 중동 문제에 관여한 국가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와 페르시아 만의 유전 지대를 장악하고자 하였고, 러시아는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를 탐냈고, 독일은 영국을 혼란에 빠트리하고자 하였다. 터키는 러시아의 침범을 두려워하면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싶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인 동기들, 인간이 만들어낸 군사적 동기들을 면밀히 조사한 것이 이 책의 의의이다. 물론 아랍인들의 반란과 같은 일부 설명들이 조금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갈등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의 중동 정세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된다. 오스만 제국의 고문서를 활용했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